

별명값 한 '천재'... 김도영, 전반기 '20-20' 달성

KIA-한화 더블헤더 1차전

김도영, 4회 류현진 상대 솔로포

'20-20' 타이거즈 12번째·전체 57번째

최형우·나성범 불방망이에도 8-9 패

외야 수비 실수에 뒷심싸움 밀려

정해영 어깨통증... 오늘 병원 검진



KIA 타이거즈 김도영이 '괴물'을 상대로 KBO 역사에 이름을 새겼다.

KIA 김도영이 23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이글스와와의 시즌 7차전이자 더블헤더 1차전에서 류현진을 상대로 홈런포를 날렸다.

1회 첫 타석에서 3개의 직구로 스탠딩 삼진을 당했던 김도영은 0-5로 뒤진 4회 선두타자로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섰다.

이번에도 초구 스트라이크를 지켜본 김도영은 2구 볼에 이어 3구째 125km 체인지업에 방망이를 휘둘렀다. 김도영의 방망이를 떠난 공은 175.59km의 타구 속도로 130m를 비행하면서 좌중간 넘는 시즌 20호포가 됐다.

이날 경기 전까지 19홈런과 22도루를 기록하고 있던 김도영은 세 경기 연속 홈런과 함께 '20홈런-20도루'를 채웠다.

'20-20'은 타이거즈 12번째이자 역대 57번째 기록이다.

팀의 가장 최근 기록은 2018년 로저 바나디나(2018년 9월 11일)가 가지고 있다.

토종 선수로 따지면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003년 9월 13일 이종범이 1996년(25홈런 57도루), 1997년(30홈런 64도루)에 이어 세 번째 '20-20' 클럽에 가입했다. 이종범은 이 해 20홈런 50도루를 기록했다.

김도영은 류현진을 상대로 한 시즌 20번째 홈런으로 김재현, 이병규, 박재홍, 예릭 테임즈 등 리그의 내로라하는 타자들에게 이어 KBO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된다.

김도영은 20세 8개월 21일에 '20-20'에 성공하면서 18세 11개월 5일에 기록을 달성한 김재현(LG)에 이어 최연소 2위가 됐다.

경기 수로 따지면 테임즈와 함께 공동 3위(73경기)다. 이병규(LG)가 68경기 박재홍(현대)이 71경기 만에 '20-20'을 완성한 적이 있다.

또 김도영은 박재홍(1996·2000년), 이병규(1999년), 테임즈(2015년)에 이어 '전반기 20-20'을 달성한 역사상 4번째 선수가 됐다.

2022년 4월 9일 프로 첫 안타를 SSG 김광현을 상대로 뽑아냈던 김도영은 역사적인 홈런도 류현진과의 첫 경기에서 장식하면서 '괴물 사냥꾼'이 됐다.



23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와 KIA 타이거즈의 더블헤더 1차전에서 KIA 김도영이 4회말 홈런을 친 후 덕아웃에서 동료들에게 '20-20달성' 축하를 받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야수 막내 김도영의 기록적인 홈런에 이어 최고 잠 최형우는 '백투백' 홈런을 만들었다. 시즌 28번째, 1144번째 기록이다. 팀의 5번째 연속타자 홈런이기도 하다.

최형우는 지난 20일 LG전에서 8회말 나성범과 팀의 4번째 '백투백' 홈런을 장식했다.

김도영은 5회 세 번째 타석에서 류현진을 상대로 멀티히트를 기록했고, 7회에도 한화 세 번째 투수 박상원에게 세 번째 안타를 뽑아내면서 1타점 3득점의 활약도 선보였다.

하지만 김도영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던 1차전 승리는 한화의 차지가 됐다.

4회말 김도영의 홈런을 시작으로 최형우의 홈런이 이어지면서 2-5, 5회에는 나성범이 1사 1·2루에서 류현진의 직구를 공략해 동점 스리런까지 날렸다.

이날 경기 전까지 14경기에서 338명의 타자를 상대하면서 단 하나의 홈런만 허용했던 류현진을

상대로 3개의 홈런을 뽑아낸 KIA. 5-6로 뒤진 7회 말에는 3점을 보태면서 승리를 가져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외야에서 최원준의 아쉬운 수비가 이어지면서 KIA가 뒷심 싸움에서 밀렸다. 설상가상 부상도 발생했다.

8-8로 맞선 9회초 등판한 마무리 정해영이 1사에서 김태연에게 좌월 솔로포를 맞으면서 역전을 허용했다.

정해영은 이어 최재훈을 우익수 플라리로 잡았지만 이도윤과의 승부에서 3개의 볼을 연달아 던진 뒤 등판을 멈췄다. 오른쪽 어깨에 통증을 호소한 정해영은 그대로 마운드에서 물러났다.

KIA는 김대유로 남은 아웃카운트를 채웠지만 9회말 공격이 소득 없이 끝나면서 8-9, 패배를 기록했다.

한편 정해영은 24일 병원 검진을 받을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별들의 잔치' 올스타전 인천서 다음달 5·6일

KBO리그 '별들의 잔치' 올스타전이 7월 5·6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린다.

KBO는 랜더스필드 인천 공항과 비행기를 모티브로 키비주얼을 제작했다. 선글라스를 착용한 비행 야구공 캐릭터 '크벡기'를 통해 10 구단이 활주로에 모여있는 모습을 표현했다.

팬들과 선수가 함께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들도 마련됐다. 신한 SOL뱅크 워터페스티벌이 열리면서 야구장이 워터파크로 변신한다. 1·3루 응원 단상에 워터게이 설치돼 경기 중 중요한 상황에서 시원한 물대포가 터진다. 워터페스티벌은 이를 연속 진행한다.

5일에는 남부리그(KIA, 상무, 롯데, KT, NC, 삼성)와 북부리그(한화, 두산, LG, SSG, 고양) 유망주들의 퓨처스 올스타 무대가 펼쳐진다.

베스트 퍼포먼스상 수상자는 퓨처스리그 타이틀

스폰서인 메디힐이 후원하는 상금 100만원과 부상을 받는다.

퓨처스 올스타전이 끝난 뒤에는 '컴투스프로야구 홈런더비'가 열린다. 팬투표를 통해 선정된 선수가 홈런 데비에 참가해 시원한 홈런쇼를 펼치게 된다. 팬투표는 베스트12와 감독 추천 선수 중 23일까지 10개 이상의 홈런을 기록한 선수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홈런더비는 예선 7아웃, 결승 10아웃제로 전개된다. 6일 본 무대는 KBO 올스타 팬사인회로 문을 연다. 선수들과 어린이 팬이 함께하는 올스타전의 대표 행사 '썸머레이스', 대형 태극기 세례모니도 펼쳐진다. 그리고 오후 6시 나눔 올스타(KIA, LG, NC, 한화, 키움)와 드림 올스타(KT, SSG, 두산, 롯데, 삼성)의 맞대결이 시작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박현경, 4차 연장 혈투 끝 시즌 2승

KLPGA BC카드·한경레이디스컵...윤이나 준우승

박현경(사진)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BC카드·한경레이디스컵(총상금 14억원) 정상에 올랐다.

박현경은 23일 경기도 포천시 포천힐스CC(파72-6528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2개로 2언더파 70타를 쳤다.

최종 합계 12언더파 276타를 기록한 박현경은 윤이나, 박지영과 4차 연장 승부를 벌인 끝에 우승 상금 2억5200만원 주인공이 됐다.

박현경은 5월 두산 매치플레이 이후 한 달 만에 시즌 2승째를 거뒀다. 투어 통산으로는 6승째다.

3라운드까지 박지영과 함께 공동 1위였던 박현경은 5, 6번 홀 연속 보기가 나와 한때 선두에서 내려왔다.

박현경이 8, 9번 홀에서 연속 버디를 뉘어 윤이나와 공동 선두에 올랐으나 윤이나가 10, 11번 홀 연속 버디로 응수하는 바람에 간격이 다시 2타로 벌어졌다. 박현경이 12번 홀(파4)에서 10m 버디 퍼트를 넣고 1타 차로 추격하자 윤이나는 13번 홀(파5) 그린 주위 칩샷을 버디로 연결하며 2타 차를 유지했다. 그러나 박현경이 꾸준히 파를 지키며 기회를 엿보는 사이 윤이나가 15번과 17번 홀



에서 1타씩 잃으면서 박현경과 12언더파 공동 선두가 됐다.

18번 홀에서 이어진 연장에서 1차 연장은 버디, 2차 연장은 파로 비겼고 홀 위치를 바꿔 진행한 3차 연장에서 박지영이 먼저 탈락했다. 같은 홀에서 진행된 4차 연장에서 윤이나의 4m 버디 퍼트가 홀을 돌아나온 반면 박현경은 50cm 버디 퍼트를 넣고 길었던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연합뉴스

김민규 '아일랜드홀'의 기적

한국오픈 11언더파 273타 우승...7월 2년만에 메이저대회 출전

김민규(사진)가 공이 물에 빠졌다가 튀어나오는 행운을 안고 내셔널 타이틀 한국오픈 골프선수권대회에서 2개의 우승컵을 수확했다.

김민규는 23일 충남 천안시 우정힐스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린 코오롱 제66회 한국오픈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5개, 보기 2개를 묶어 5언더파 66타를 적어냈다.

합계 11언더파 273타를 친 김민규는 2022년 한국오픈 우승 이후 2년 만에 정상에 다시 올라 국내 골프대회 최고의 우승 상금인 5억원을 받았다.

지난 2일 끝난 데샤프코리아 매치플레이에서도 우승한 김민규는 올 시즌 처음으로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에서 2승을 거둬 단숨에 시즌 상금 랭킹(7억7200만원)과 대상 포인트(3926점) 1위로 올라섰다.

또한 우승자에게 주는 브리티시 오픈(디오픈) 출전권도 받아 오는 7월 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메이저 대회에 2년 만에 다시 출전한다.

나머지 한장의 디오픈 출전권은 준우승자인 송영환에게 돌아갔다.

송영환은 합계 8언더파 276타를 쳐 단독 2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선두 송영환에게 3타 뒤진 3위에서 4라운드를 시작한 김민규는 초반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8번 홀(파5)에서 이글을 잡아 공동 선두로 올라섰다.

김민규는 227야드를 남기고 친 두 번째 샷을 홀 3m에 떨어뜨린 뒤 이글 퍼트를 넣었다.

12번 홀(파4)에서 2.5m짜리 버디 퍼트를 성공, 3타차 선두로 달아난 김민규는 13번 홀(파3)에서 아찔한 순간을 맞았다.

워터헤저드로 둘러싸인 13번 홀에서 티샷이 그린 왼쪽으로 날아가 물에 빠진 듯했다. 그러나 공은 물보라를 한번 튀기더니 기적처럼 러프포 튀어 나왔다.

김민규는 두 번째 샷으로 공을 그린 위에 올린 뒤 파로 막아내며 큰 위기에서 벗어났다.

한숨을 돌린 김민규는 14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4타차로 달아났다.

16번 홀(파3)에서 한 타를 잃은 김민규는 한 때 2타차로 쫓기기도 했으나 18번 홀(파5)에서 버디를 뽑아내 완승을 거뒀다.

장유빈은 이날 6타를 줄이며 선두권을 추격했으나 합계 7언더파 277타로 강경남과 함께 공동 3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